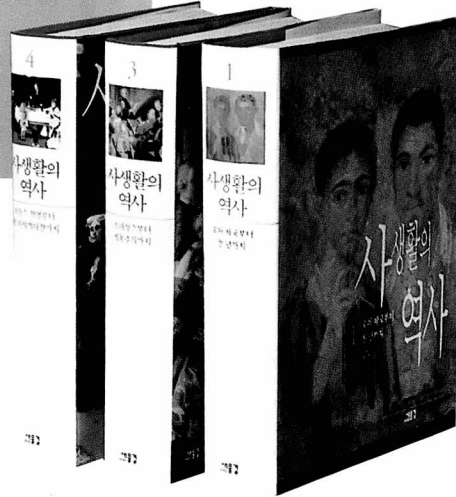


계몽과 이성에서 해방된 개인의 내밀한 역사

《사생활의 역사(1·3·4)》 출간

필립 아리에스 · 조르주 뒤비 책임편집 | 주명철 외 옮김
새물결/A5신/896면 내외/각 43,000원



전5권으로 완간될 예정인 《사생활의 역사》(새물결) 가운데 1·3·4권이 먼저 나왔다. 프랑스 최유판 원서는 1976년부터 10여년간의 작업을 거쳐 1985년 출간됐다. 이 책은 전5권 약4천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데다 학술서 성격이 짙은데도, 프랑스에서만 20만장이 팔릴 정도로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현재 전세계 14개 언어로 완역됐는데, 새물결판은 7여년 동안 번역과 편집에 공을 들인 후 이제야 선보였다.

구체적 개인의 환희와 갈등, 꿈 복원해

이 책은 국가사·민족사·왕조사·경제사 등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복원한다. 흔히 사생활이란 공적 영역에서 철수한 개인이 비밀스럽고 지리멸렬하게 살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돼왔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 등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는 무시해도 되거나 금지된 영역이었다. 이 책은 사적인 영역이 은둔의 처소가 아니라 우리의 환희와 갈등, 꿈으로 가득 찬 장소라고 일깨워준다.

역은이인 조르주 뒤비의 말처럼 사적인 영역에서는 “남성의 권력과 여성의 권력이, 노인의 권력과 젊은이의 권력이, 주인의 권력과 노예의 불복종이 울타리 밖(공적 영역)에서 보다 한층 더 격렬하게” 부딪힌다. 따라서 국가나 제도의 틈바구니에서 사라져버린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느끼며 사랑하고 꿈꾸는지 밝히는 일은 곧 인간의 본질에 다가서는 일이다.

사생활이란 개념은 19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 책은 로마 제국부터 20세기까지 아우르는데,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과 끊임없이 상호 침투하고 개입한다는 관점에서 시대의 범위를 확장했다. 1권은 서기 800년부터 1000년까지 다루는데, 주로 로마인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일생을 재구성하고 그들의 일과 여가, 부부관계, 재산에 대한 태도, 욕정과 사랑 등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3권에서는 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중세의 공동체적 집단심성에서 벗어나 19세기 가정의 영역에서 피난처를 찾으려는 열망으로 넘어가는 과정, 즉 근대성의 형성과정을 추적한다. 이 때는 개인적인 내밀성이 승리하는 시대로 기록된다. 궁정과 민중 사이의 중간층에서 사교적인 집단들이 형성되고 가정생활이 사회적 공간에 침투하기 시작하며 점차 사생활의 영역이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4권은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시기로 혁명이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개인과 가족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부르주아 계층이 가정이라는 안전하면서 견고한 성체를 형성하면서

개인의 우주를 만들어간다. 이 때 개인들은 시간과 공간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생식기능, 결혼, 이성애에서 해방된 주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라는 새로운 미학과 감수성을 발견해간다.

장기지속적인 집단심성의 역사 부각시켜

이 책은 역사서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명명할 정도로 혁명적이다. 기존의 역사서가 영웅이나 지배계급이 주연으로 등장하며 의회나 공정,

회의실에서 그친다면 이 책은 여자, 노예, 아이들, 미성년이 무대에서 움직이며 침실, 목욕탕, 식탁, 화장실 등이 무대의 소품으로 배치된다. 주인공들의 공적 의견이나 정치적 선언, 외교문서의 수사학 대신 의식주나 유희, 물질적 탐욕이나 육체적 욕망 등이 전경화한다.

역사의 본질이 개인이나 집단의 국부적 세목에 주목하기보다는 전체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역사의 본질에 가장 밀착해 있다. 아날학파의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은 집필자들은 장기지속적인 삶의 흐름을 부각시키거나 집단적인 심성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역사의 서사성을 탁월하게 성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의 가치는 빛난다. 이 책은 역사가 관념과 추상, 계몽과 이념의 건축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삶과 꿈 이야기라는 점을 깨우쳐준다.

미셸 페로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해준다. “우리는 발자크처럼 가족간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만큼이나 네르발류의 욕망의 역사도 쓰고 싶었고, 내밀성에 대해 프루스트식으로 음악적으로 묘사하는 역사도 쓰고 싶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지은이들은 경찰이나 사법부의 문서, 가족간의 서신, 일기·자서전·회고록 등 개인적 문학작품을 중흥으로 누비면서 인간들의 숨결과 목소리를 포착해간다.

이 책은 편집의 승리라고 할 정도로 텍스트와 이미지가 정교하면서도 유기적으로 배치돼 눈길을 끈다. 각권마다 들어 있는 각종 도판과 이미지는 텍스트의 이야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침묵하는 과거의 기억에 입을 열어주고 있다. 국내 번역판도 원본만큼이나 편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번역원고를 8교까지 교정볼 정도로 공을 들였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영어판·독일어판·일어판과 대조했다. 현재 2권과 5권을 편집하는 데 막바지 역량을 쏟고 있는데, 올해 연말쯤이면 독자들 찾아갈 예정이다. — 박천홍 기자